

여수박람회 기업 후원 저조

대기업 참여 꺼려 13곳 402억 유치...목표액 절반도 안돼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기업 후원이 당초 목표액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쳐 비상이 걸렸다. 9일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박람회 기업 후원금은 현재 총 13개 기업으로부터 402억여원을 유치해 목표액 901억원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확정된 후원사는 기업·광주은행, 인터파크 INT, 대우조선해양, 현대해상, 제일모직 등이고 우선협상 대상 업체는 롯데칠성음료로 의류·음료·항공 등 3등급 이하 후원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후원 사업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2등급 후원사는 은행을 제외하고는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태다.

조직위원회는 1·2등급 공식 후원사 유치를 위해 전자·통신·자동차 분야의 7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있지만 1개사를 제외하고는 아직 후원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조직위원회가 공을 들이고 있는 중점 유치 대상은 삼성전자·LG전자·현대기아차·KT·SKT·GS칼텍스·SK에너지 등 7개 대기업이다. 대기업들은 올림피아드 월드컵 등에 비교해 미디어 노출 한계와 박람회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확신 부족, 기업관 참여에 따른 이중적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후원 참여를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등급별 후원액은 1등급 80억 이상, 2등급 60억 이상, 3등급 30억 이상, 4등급 20억 이상, 5등급 10억 이상이다.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대기업을 박람회 후원 참여가 안정적 재원 확보는 물론 박람회 브랜드 가치의 동반 상승을 통한 성공 개최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대기업 후원을 유치를 사활을 걸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순천만 여름 전경을 즐기는 사람들

여름휴가를 맞아 순천만을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갈대길을 걸으며 여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세계 5대 연안습지로 꼽히는 순천만은 다양한 갯벌생물과 습지식물들이 함께 어우러진 생명의 <순천시 제공>

여수특산품, 지리적 표시단체표장 신청

여수시는 지역특산품인 ‘돌산 갯김치’와 ‘거문도 해풍’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을 추진한다. 여수시는 최근 단체표장출원 등록을 위한 외부 수렴기관을 선정했으며, 연구결과 보고회 등 제반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경 특허청에 단체표장 출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돌산갯’과 ‘갯김치’는 지난해 7월 지리적 표시 제67호와 제68호로 등록됐고, ‘거문도 해풍’도 올 초 1차 심사를 통과해 올해 안에 지리적 표시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완료되면 지역 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곡성군, 13일 섬진강변 ‘자전거 대행진’

곡성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3일 섬진강변에서 ‘제3회 청정고을 자전거 대행진’을 벌인다. 이번 자전거 행진은 섬진강 가마마을 광장에서 출발해 섬진강변을 따라 고달 수원을 거쳐 군청까지 20km 구간을 달린다. 이번 대회에는 자전거 동호회원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완주자에게는 심정 상품권(5000원권)을 증정한다. 곡성의 신선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직판장도 마련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환상의 자전거 코스를 자랑하는 곡성군의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페스티벌 광양’ 미래 문화축제로

시, 행사장·이벤트 등 사업기획 확정

내년 열리는 ‘페스티벌(Festival) 광양’ 행사가 문화와 산업, 건강이 어우러지는 미래성장 문화축제로 치러진다. 광양시는 최근 추진위원회를 열고 행사 명칭과 엠블럼, 행사장 구성, 이벤트 계획, 입장료 책정, 소요예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안을 확정·승인했다. 시는 축제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해 흥미와 관심유발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시작하고 블로그,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 미디어를 통해 젊은 층의 관광객 유치와 각종 문화행사·동호인대회·생활체육대회·오토캠핑대회·인라인 스케이트대회 등 각종 부대행사를 적극 유치하는 홍보 전략을 수립했다. 또 시는 앞으로 이·통장 회의, 각급 기관·단체·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행사에 대한 의미와 가치,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에 들어설 페스티벌 공연장은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와 긴밀히 협력을 차별화된 세계 최대 아트 서커스라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고흥군 황토·유황 이용농법 추진

병·충 동시 방제효과 탁월...제조법 농가 보급

고흥군이 황토와 유황을 이용한 이색적인 친환경 농법을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 고흥군은 ‘농수산식품 산업비전 5000 프로젝트’ 추진(감소농 육성)과 함께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해 황토유황 제조법과 사용방법을 농가에 보급, 경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자재인 황토와 고령토, 유황을 이용한 ‘황토유황’을 제조하는 방법을 연구·개발했다. ‘황토유황’은 병과 충(蟲)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안전한 친환경 자재로서 지난 2008년부터 유자 2개소, 쌀 1개소, 석류 1개소 등 4개소 농업인 단체에 군비를 투입하여 제조시설을 설치·완료했다. 유자연합회, 친환경 석류연구회, 친환경 쌀 연구회, 포두 친환경 쌀 재배단지 등 500ha를 대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황토유황을 활용한 경영비 절감효과는 유자 1회 황토유황 방제비용 ha당 7만5000원으로 1회 화학농약 방제비용(ha당 60만원)에 비해 88%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벼는 방제비용을 70% 정도 절감해 적은 비용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u@

모터보트 질주본능 새만금서 펼쳐진다

내달 3~4일 ‘수상 레저축제’

각종 모터보트들의 쾌속 질주를 볼 수 있는 수상 레저축제가 다음달 새만금에서 열린다. 전북도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9월 3~4일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에서 ‘2011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모터보트대회 및 새만금 수상레저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공단 이사장배 모터보트대회와 수상레저를 테마로 한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모터보트 대회에는 미사리 경정장에서 활약하는 스타 경정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신시배수 갑문앞 바다에서 실력을 겨룬다. 선수들은 K-450(배기량 450cc·한국 경정 경주용 모터보트)과 OSY-400(400cc) 종목에서 자존심을 건 경주를 펼친다. 또 평균 시속 200km의 F1보트(배기량 2500cc)와 시속 150km의 T1보트(배기량 850cc) 등 초고속 보트 퍼레이드도 이어진다. 이 밖에도 수상 오토바이를 비롯한 수상 레저기구의 시범 운행이 볼거리로 등장한다. 공단은 대회 개막·시상식 공식 행사와 함께 수상레저의 즐거움을 알리는 수상·문화행사를 알차게 준비할 방침이다. 방조제 중간 신시 배수 갑문에 마련한 행사장에서 새만금 아리랑 상설 공연과 연계해 문화공연을 꾸미고 수상스포츠 체험공간과 전시공간을 마련한다. 부대행사 세부계획은 공식 대행사가 선정되는 대로 확정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이번 수상축제가 새만금의 인지도와 관광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전북도는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정국부의 불가안정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을 평균 11.63%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평균 공급 비용은 종전 m당 101.51원에서 89.70원으로 내렸다. 특히 14개 시·군 가운데 김제시와 정읍시가 24.23%, 19.18%로 인하폭이 컸고, 전주·군산·익산도 0.31~5.30% 내렸다. 이번 결정된 공급 비용은 7월 1일 사용분부터 소급해 적용받게 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예술하는 중이에요”

어린이들이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에 위치한 ‘부안 청자박물관’에서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청자박물관은 고려 당시 부안 청자를 생산했던 유천도요지(사적 제69호) 인근에 지난 4월 건립됐다. /연합뉴스

고창 복분자 음료 싱가포르 수출

‘애드립’ 3년간 100만달러 계약

고창에서 생산된 복분자 음료가 싱가포르에 수출된다. 고창군은 “고창 황토복분자영농조합(대표 서지정)이 싱가포르 헬스앤트레이드사(社)와 3년 동안 100만 달러 어치의 복분자 음료 ‘애드립’을 수출하기로 계약했다”고 9일 밝혔다. 영농조합은 오는 26일까지 1차 수출분 8.4t을 선적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윤창영기자 young@

전북도내에 건설 중인 대규모 산업단지 5곳에 전용 공업용수가 공급된다. 전북도는 현재 시공 중인 익산 일반 산업단지와 정읍 첨단산업단지, 김제 지평선산단, 고창 일반산업단, 완주 테크노밸리 등 5개 단지에 오는 2013년까지 37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용 공업용수 공급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북 도시가스 공급비 11.63% ↓

전북도는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정국부의 불가안정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을 평균 11.63%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내 평균 공급 비용은 종전 m당 101.51원에서 89.70원으로 내렸다. 특히 14개 시·군 가운데 김제시와 정읍시가 24.23%, 19.18%로 인하폭이 컸고, 전주·군산·익산도 0.31~5.30% 내렸다. 이번 결정된 공급 비용은 7월 1일 사용분부터 소급해 적용받게 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진안군 동향일대 수박 주산지 육성

진안군 동향면 일대가 명품수박 주산지로 육성된다. 9월 전북도에 따르면 해발 400m인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일대(일명 진안고원)를 명품 수박 로드 개척지로 선정하고 120ha에 소형터널형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수박을 재배 중이다. 고령자인 진안고원 수박은 심한 일교차로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아 명품 수박재배 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과육이 아삭아삭하고 씹히는 맛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서울 가락동과 정랑리, 감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기도 했다. 전북도는 더 좋은 명품수박을 생산하기 위해 앞으로 소형터널형 비가림 시설을 현대화하고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북 산단 5곳 전용 공업용수 공급

전북도내에 건설 중인 대규모 산업단지 5곳에 전용 공업용수가 공급된다. 전북도는 현재 시공 중인 익산 일반 산업단지와 정읍 첨단산업단지, 김제 지평선산단, 고창 일반산업단, 완주 테크노밸리 등 5개 단지에 오는 2013년까지 37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용 공업용수 공급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단신

전주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전주시는 9월 30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이번 기간동안 신고해야 할 대상시설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 시설을 개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시는 자진신고 기간내 불법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자진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 및 신고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수질 검사 등 자진신고에 따른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절차도 간소화해 양성화해줄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정읍 야구대표팀 ‘도 야구연합회장배’ 우승

정읍시 야구대표팀이 ‘2011 국민생활체육 전북도 야구연합회장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7월 31일부터 7일까지 토너먼트 방식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정읍시를 비롯해 전주, 익산, 군산시 등 총 10개시·군 대표팀이 참가했다. 정읍시 대표팀은 익산시와 완

주군을 누르고 결승에 진출해 순창군 대표팀을 11:9로 이겨 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다. 유종재 연합회장은 “500여명의 야구동호인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2곳 이상의 야구장이 더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시, 국민체육센터내 볼링장 민간 위탁

김제시는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체육센터 볼링장을 민간 위탁한다. 위탁 대상시설은 볼링장 614.54㎡(12 레인)를 비롯해 홀 143.13㎡, 사무실 15.2㎡, 휴게실 12

㎡, 기계실 57.5㎡, 화장실 45.84㎡ 등이다. 시는 위탁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순부터 2년간 위탁운영을 실시, 김제 시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은 물론 볼링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홍순기기자 hnews@

완주서 15일까지 ‘무궁화 전국 축제’

나라꽃인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제21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가 오는 15일까지 완주군 고산면 무궁화 테마시설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서는 11만3천435

㎡에 조성된 무궁화 꽃밭과 분화, 사진, 한지공예를 감상할 수 있다. 숲속문화재, 마을예술단 공연 같은 다양한 행사와 무궁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도 진행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